

## “노인 학대 문제: 인식 제고를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

Mala Kapur Shankardass

세계노인학대방지망(International Network for Prevention of Elder Abuse, INEPA)

mkshankardass@gmail.com

---

고령화가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두드러짐에 따라 노인 학대가 21세기의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많은 국가의 노인들은 그들의 행복, 존엄성 및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권리 침해와 관련하여 우려되는 상황에 놓여있다. 노인들은 가족, 보호시설의 직원, 낯선 사람들로부터 방임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기본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많은 자원을 박탈당하는 등, 점점 더 다양한 형태의 학대에 노출되고 있다. 어떤 형태든, 징후든 노인 학대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중 보건상의 문제가 되었다. 국가 및 시민사회 차원의 여러 조직이 노인 학대를 막는 데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노인 학대 문제가 더욱 가시화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이를 보편적이고 문화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대처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노인 학대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측면들을 조명하고, 노인 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층위에서 수행되고 있는 노력들에 대해 간략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많은 국가가 자신만의 문화적, 사회적 맥락에 기초하여 노인 학대에 대해 고유한 정의를 내리는데 집중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노인 학대는 돌봄 제공자 혹은 신뢰할 만하다고 기대할 수 있는 자가 노인에게 해를 끼칠 만큼 위험을 초래하거나 야기하는, 고의적인 행위, 또는 잘못된 행위로 이해된다.<sup>1</sup> 세계보건기구 이하 WHO는 이를 "신뢰에 대한 기대가 있는 어떤 관계 속에서 고령자에게 해를 끼치거나 고통을 주는, 단일하거나 반복적인 행위 혹은 적절한 조치의 결여"로 정의한다.<sup>2 3</sup> 노인 학대에 관한 이러한 정의가 많은 국가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일부 국가는 그들의 문화, 법률 용어,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프로토콜에 기반하여 독자적으로 해석하려고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대(abuse)에 대한 WHO 정의는 다양한 분야와 목적을 위한 표준에 가까운 정책 공식으로 간주된다. 이 학대(abuse)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노인에 대한 태만(negligence)과 함께, 많은 국가, 특히 서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노인 학대 및 학사(mistreatment)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들 용어가 세계 여러 지역에서 함께 사용되거나 서로 대체되어 사용되기도 한다.<sup>4</sup>

개인의 수준, 혹은 관계 속에서, 또는 지역 사회 혹은 사회적 차원의 다양한 요인이 노인 학대의 가해자가 될 위험성에 기여하며, 이러한 요인에 대한 이해는 정부가 노인 학대 예방법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유럽국가, 미국과 캐나다 같은 선진국 및 일부 아시아-태평양 국가에서는 노인 학대 사례를 인정하고, 이에 따라 예방 및 개입 전략 수립이 용이하도록 노인 학대에 관한 통일되고 체계적인 정의를 내리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노인 학대를 다루는 법과 그 정의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다양하지만, 대략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즉, 육체적 학대, 정서적/심리적 학대, 방임(최근에는 자기 방임도 포함), 성적 학대, 유기 및 재정적 학대/착취로 나뉜다. 이것들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노인 학대의 형태이며, 국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노인 학대의 형태가 문화적 맥락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는 데 합의하였다. 신체적 학대의 경우, 신체적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물리적 힘의 사용이 있을 것이며, 육체적 고통이나 장애를 야기한다. 정서적/심리적 노인 학대는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행동을 통해 비통함, 고통 또는 정신적 괴로움을 수반한다. 방임은 노인에 대한 개인의 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며, 여기엔 자기 방임도 포함할 수 있다. 성적 학대는 어떤 종류의 동의 없이 노인과 성적 접촉이 있을 때 확인된다. 노인 학대로서의 유기는 노인에 대한 물리적 양육권을 가진 개인 또는 노인을 돌보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 노인을 버릴 때 발생한다. 현대 사회에서 매우 흔한 재정적 학대/착취는 노인의 자금, 재산 또는 자산의 불법적 또는 부적절한 사용을 의미한다.<sup>5</sup>

2000 년 이후 영국, 스페인, 독일, 아일랜드, 이스라엘, 핀란드, 캐나다 및 미국의 주요 연구를 포함하여 만연 연구(prevalence studies)가 크게 증가했다.<sup>6</sup> 인도에서도 HelpAge India 와 같은 NGO 가 최근 자국의 노인 학대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sup>7 8</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유형의 학대에 대한 만연 데이터(prevalence data)는 전 세계적 추정치를 제공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이용할 수 없다. 하지만, 세계 여러 지역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학대 받는 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사회가 고령화되고 노인의 절대 수와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더 증가하고 있다. 국립노화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Aging)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노인 10 명 중 1 명은 매년 특정 유형의 학대를 겪는다. 그러나 노인 학대의 징후는 종종 보고되지 않거나 가해자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뉴욕주 노인 학대 만연 연구에 따르면, 뉴욕주에서만 노인 학대, 방임, 착취 또는 자기 방임 건별 사례가 당국에 신고될 때마다 최소 5 건이 누락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저개발 및 중진국 12 개국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의 28 개국 52 개 연구에 기반한 2017 년 WHO 연구에 따르면, 지난 1 년 동안 60 세 이상 인구의 15.7%가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sup>9</sup>

그러나 전문가들은 노인 학대 추정치는 항상 과소 보고되어 과소평가되기 때문에 주의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WHO 연구에서는 노인 학대 사례 24건 중 1건 만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인 학대 사례를 가족, 친구에게 알리거나 당국에 신고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용 가능한 정부 데이터 또는 NGO의 데이터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WHO 연구에서는 철저한 검증에 기반한 데이터는 제한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유형의 학대에 노출된 노인 수에 대한 모든 가용 연구를 바탕으로 한 만연 추정치를 제공하며, 이 수치는 충격적이다. 인권의 관점에서 볼 때, 학대와 방임에 노출된 노인은 생명의 존엄성과 존중 받을 권리를 명백히 침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역사회 연구의 노인 학대에 대한 데이터는 장기 요양 시설과 병원, 요양원 및 노년 가정과 같은 기타 노인보호기관내 문제를 파악하는 것보다 더 쉽게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WHO 연구가 보여주듯, 노인 피해자들이 직접 보고한 지역사회와<sup>10</sup> 시설에서<sup>11</sup> 일어나는 노인 학대에 대한 최근 연구와 문헌에 따르면, 지역사회보다는 시설에서 일어나는 학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에서의 학대의 경우, 방임, 일상에 대한 무관심, 영양 및 약품 부족,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보호 장치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형태로 발생한다. 지난 2020년, WHO는 요양원 및 장기 요양 시설과 같은 기관에서 노인 학대 비율이 높으며, 직원 3명 중 2명이 과거 1년간 학대를 저질렀으며, 60세 이상 노인 6명 중 1명이 지난 1년 동안 지역사회 환경에서 일종의 노인 학대를 경험했다고 보고하였다. 다른 인구 기반 연구에서 노인 학대 만연에 대해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다양한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효한 의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제적 전문가들에게는 노인 학대 문제에 대한 전 세계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노인학 연구자들이 노인 학대 현황을 파악하고 무엇보다도 노인 학대 식별을 위해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세트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미 언급했듯이, 노인 학대(abuse)와 방임, 또는 노인 학대 및 혹사(mistreatment)로 일컬어지는 현상에 대한 이해는 경험적으로나 개념적으로 흥미로운 시점에 있다.<sup>12</sup> 노인 학대에 관해 WHO 와 Campbell Collaboration 이 최근 수행한 프로젝트에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동 주제 관련 다양한 측면에서 데이터 및 연구의 국제적 격차를 검토했다. 2021년 2월에 열린 회의에서는 노인 학대가 고령 전문가들에 의해 산발적으로만 처리되었으며, 사회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 학대 문제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WHO는 2021-2030년 유엔 헬씨 에이징 10년(UN Decade for Healthy Ageing 2021-2030) 동안 노인 학대 관련 활동을 확대함으로써 이러한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갔다. WHO는 증거에 기반한 지속적인 전략의 개발을 지지한다. 흥미롭게도, 이보다 앞서 2016년 5월 세계 보건 총회(World Health Assembly)는 노화 및 건강에 관한 글로벌 전략 및 행동 계획을 채택, 노인 학대와 관련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궤를 같이 하는 국가들의 대응 행동 지침을 마련하였다. WHO는 국제전략에 따라 협력국들과 함께 각국이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이 문제에 대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권고안은 각국이 노인 학대를 파악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만연한 노인 학대 유형에 대한 증거를 생성하여 노인 학대 문제를 정량화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노인 학대 문제의 규모와 성격을 세계적 수준에서 파악하고 자 한다. 또한, 이 전략은 각국 정부 수준에서 노인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국제기구 및 조직과 협력하여 전 세계적으로 노인 학대를 근절할 것을 주창한다.

이러한 방향에서 독립적인 비영리 비정부기구인 세계노인학대방지망(INPEA, International Network for Prevention of Elder Abuse)은 UN 경제사회사무국 EcoSoc의 특별자문 기관으로서 그리고 국제 노인학 및 노인학 협회(IAGG)와 협력하여 주목할 만한 기여를 하고 있다. INPEA는 1997년 창립 이래 노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활동과 연구에 참여해 왔다. 노인 학대와 방임을 종식시키기 위해 대표자들, 자원봉사자 및 지지자들을 통해 세계 각국에서 활동해 왔다. 2006년 6월 15일, INPEA는 전 세계 개인, 조직 및 지역사회 차원에서 노인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대중의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의 하나로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WEAAD)을 발족하였다. INPEA는 회원(기관)이 노인 학대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수준에서 활동하도록 독려한다. 많은 정부와 국제 기관들은 INPEA의 아이디어, 목표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WEAAD 기념을 통해 매년 노인 학대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다. 또한, 노인 학대 문제가 주변화되지 않고 노인 학대 문제의 가시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방지 전략을 채택한다. 노인 자신이 노인 학대에 반해 저항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며 국제 협력을 통해 노인 학대 문제에 대응한다. 그리고 노인 학대 방지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한다. INPEA는 WEAAD가 2011년 유엔 총회 결의안 A/RES/66/127을 통해 유엔의 날로 지정되었을 때 많은 격려를 받았다. WEAAD 기념을 통해 많은 국가가 다양한 예방 조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노인 학대를 방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 실행되고 있는 전략에는 인식 캠페인, 교육 기관에서 세대 간 유대 관계 구축, 간병인 지원 및 간병인 훈련 프로그램 촉진 방안 등이 포함된다. INPEA는 이러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과 계획으로, 특히 WEAAD를 통해, 지난 몇 년 동안 고령화 이슈 관련 국가와 국제기구가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약화시키고, 삶의 질을 저하하며, 경제에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연령 차별적 태도를 반성하고 교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노인 학대가 나타나고 있으며 노인 학대에 노출이 광범위하고 무수한 신체적, 심리적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이제 노인 학대는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심각한 공중 보건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많은 국가가 노인 학대 결과를 조사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 사회 및 재정적 비용 측면에서 노인 학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점점 더 많이 주목하고 있다. 의심할 여지없이 현재 여러 나라에서 노인 학대로 인한 실질적인 공공보건 부담을 추산하고 규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 중 많은 부분은 노인 학대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의 차이와 이를 측정하는 방법론적 문제, 그리고 여러 출처의 데이터를 집계, 비교, 해석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각 국가에서 노인 학대를 설명하기 위해 상이한 용어를 사용하거나 명확한 개념으로 정의되지 않는 특정 행동 범주로만 설명하는 것은 노인 학대의 사회 비용 추정을 매우 어렵게 한다. 국제 전문가들은 노인학대 문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과 특히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일의 어려움을 잘 인지하고 있다. 다양한 인구 기반 연구에서 노인 학대 만연에 대한 정확한 추정은 쉽지 않으며 다양한 장애물로 인해 통계적으로 타당성이 낮다. 그러나 노인 학대는 개인의 삶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행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노년기의 건강과 사회적 적응과 관련이 있다.<sup>13</sup> 분명히 국제 사회의 노력으로 노인 학대 연구는 의료, 임상, 심리적, 사회적, 제도적, 정책 및 철학적 관심사에 영향을 미치며 다학제적 분야로 발전했고,<sup>14</sup>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INPEA는 UN 및 WHO와 함께 노인 인권을 지지하고 이들 단체와 협력하여 국제적인 관점에서 노인 학대 예방 및 학술 연구의 기반을 구축했다. 특히, INPEA는 세계노인권리동맹(GAROP, Global Alliance for the Rights of Older People)의 9개 창립 NGO 중 하나로서 노인 인권 강화 발족(Launch of the Strengthening Older Persons Rights)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UN 개방형고령화 실무 그룹(OEWGA, Open Ended Working Group on Ageing) 세션에 앞서 NGO 네트워킹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결론적으로, 2020년 6월 15일, 노인 인권 독립 전문가인 Claudia Mahler가 WEAAD를 기념하면서 각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방임을 포함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노인들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글로벌 연대 및 강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고 고무적인 일이다.

<sup>1</sup>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21). *Preventing Elder Abuse*. [www.cdc.gov/violenceprevention/elderabuse/fastfact.html](http://www.cdc.gov/violenceprevention/elderabuse/fastfact.html)

<sup>2</sup>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2a). *The Toronto Declaration on the Global Prevention of Elder Abuse*. Geneva, Switzerland: WHO. [Google Scholar](#)

<sup>3</sup>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2b). *The World Report on Violence and Health*. Geneva, Switzerland: WHO. [Google Scholar](#)

<sup>4</sup> Shankardass, M. K. (2019). *International Handbook of Elder Abuse and Mistreatment*, Springer.

<sup>5</sup> National Center on Elder Abuse. (2010). "Major Types of Elder Abuse".

<sup>6</sup> Lindenberg, J., Westendorp, R. G. J., Kurrle, S., & Biggs, S. (2013). Special Issue Guest Editorial Elder abuse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exploring the context of elder abuse,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s*, 25(8), 1213 – 1215

<sup>7</sup> HelpAge India. (2013). *Elder abuse in India: A HelpAge India report*. [www.helpageindia.org/publications](http://www.helpageindia.org/publications).

<sup>8</sup> HelpAge India. (2014). *Elder abuse in India: A HelpAge India report*. [www.helpageindia.org/publications](http://www.helpageindia.org/publications).

<sup>9</sup>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0). *Elder Abuse, a fact sheet*, World Health Organization, Geneva.

---

<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elder-abuse>

- <sup>10</sup> Yon, Y., Mikton, C. R., Gassoumis, Z. D., & Wilber, K. H. (2017). Elder abuse prevalence in community setting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The Lancet. Glob Health*, 5(2), e147-e156. [https://doi.org/10.1016/S2214-109X\(17\)30006-2](https://doi.org/10.1016/S2214-109X(17)30006-2)
- <sup>11</sup> Yon, Y., Ramiro-Gonzalez, M., Mikton, C. R., Huber, M., & Sethi, D. (2019). The prevalence of elder abuse in institutional setting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European journal of public health*, 29(1), 58–67. <https://doi.org/10.1093/eurpub/cky093>
- <sup>12</sup> Lindenberg, J. et al. (2013).
- <sup>13</sup> Biggs, S. and Haapala, I. (2010). Theoretical development and elder mistreatment: spreading awareness and conceptual complexity in examining the management of socio-emotional boundaries. *Ageing International*, 35, 171–184. [CrossRefGoogle Scholar](#)
- <sup>14</sup> Lindenberg, J. et al. (2013).